

7월 26일(월) / 삼하 19-21

- ▶ **내용요약** : 사무엘하 19장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를 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운 병사들은 제쳐두고 오직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만 괴로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일어나 백성들 앞에 섰고, 다시 궁으로 돌아갔다. 20장에서는 불량배 세바가 이스라엘을 선동하여 다윗에게 반역했다가 한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21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집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말대로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넘겨주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려주셨다. 한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다윗은 전투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때 아비새와 다른 병사들이 다윗을 보호했고, 그로 하여금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 ▶ **질문** : 이스라엘을 선동하여 다윗에게 반역했던 불량배는? (20장)
- ▶ **생각하기** :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근처에는 언제나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했다. 또한 다윗 역시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늘 지혜롭게 행동했다.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좋은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7월 29일(목) / 대상 7-9

- ▶ **내용요약** : 역대상 7장에는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자손들과 그들이 거주한 지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7장의 족보에는 각 지파의 병사 수가 포함되어 있다. 8장에는 베냐민의 자손들과 그들의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사울과 그의 후손들도 보여주고 있다. 9장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대표 명단과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 중 처음으로 귀환하여 거주한 이들은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한편 회막 문지기와 나머지 레위 사람들을 소개한 후 사울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 ▶ **질문** :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첫 번째로 정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9장)
- ▶ **생각하기** : 역대상의 족보는 객관적인 자료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치욕의 역사가 모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자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역대기의 기록을 신앙의 거울로 삼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돈하자.

8월 1일(일) / 대상 17-19

- ▶ **내용요약** :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계획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에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다. 한편 18장에는 다윗의 승전에 대해 기록되어

7월 27일(화) / 대상 1-3

- ▶ **내용요약** : 역대상 1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 즉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에돔 땅을 다스린 역대 왕들의 이름도 담고 있다. 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족보가 시작된다. 열 두 지파 중 먼저 유다의 자손이 등장하는데, 이는 역대기의 관점이 유다지파 즉 다윗의 집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3장에는 다윗 왕의 아들과 딸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면서 여섯 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면서는 13명의 아들과 딸 다말, 그리고 그 외에 후궁들을 통해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
- ▶ **질문** :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 처음으로 기록된 지파는? (2장)
- ▶ **생각하기** : 역대기는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으로 인한 소망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에게 큰 소망이자 능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가 되자.

7월 30일(금) / 대상 10-13

- ▶ **내용요약** :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또한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성한 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러 그곳을 점령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큰 공을 세워 군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한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11장 중반에서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과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이었다.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하려고 하다가 옷사의 죽음으로 인해 계획을 미루었다.
- ▶ **질문** :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은? (13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 이후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은혜를 구하자.

7월 28일(수) / 대상 4-6

- ▶ **내용요약** : 역대상 4장에는 계속해서 유다의 자손과 시므온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유다의 후손들 중 아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한편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들 만큼 번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은 크게 번성하여 그들 지방과 세일 산으로 이주하여 그곳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5장에는 요단 동쪽에 거주했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앗수르 왕에 의해 포로가 되고 말았다. 6장에는 레위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들을 소개함으로써 예배와 관련된 레위 자손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 ▶ **질문** : 유다 지파와 근접해 있었으며, 처음에는 번성하지 못하다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했던 지파는? (4장)
- ▶ **생각하기** : 요단 동쪽 지파들은 요단 서쪽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고,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다.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자.

7월 31일(토) / 대상 14-16

- ▶ **내용요약** : 역대상 14장에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 목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위해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갔다. 한편 15장에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 그때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고, 사울의 딸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는 다윗 왕을 업신여겼다. 16장에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부른 감사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감사하였다.
-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16장)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 을 찾을지어다”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존귀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물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의 이름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 ▶ **질문** : 다윗이 보낸 사절을 모욕함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 패배한 나라는? (19장)
- ▶ **생각하기** :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순종과 그들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들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셨다.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도록 만든다.